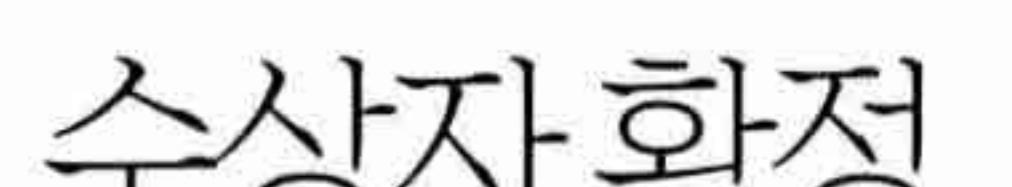


인쇄문화대상 · 직지상

2008년도 인쇄문화대상 수상자가 확정됐다. 대한인쇄문화협회 포상심사위원회는 최근 인쇄문화대상 수상자로 경영부문 대상에 조정석 (주)대원문화사 사장, 기술부문 대상에 이재환 태양씨앤피 사장, 진흥부문 대상에 김상래 (주)성도GL 사장, 특별부문 대상에 홍종진 배첩장(무형문화재), 직지상에 한행수 (주)두산인쇄 반장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시상은 오는 9월 18일 오후 5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리는 대한인쇄문화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장에서 정부포상과 함께 이루어진다.



수상자 확정



경영부문

조정석 _ 대원문화사 사장



기술부문

이재환 _ 태양씨앤피 사장



진흥부문

김상래 _ 성도GL 사장



특별부문

홍종진 _ 배첩장(무형문화재)



직지상

한행수 _ 두산인쇄 반장



경영부문 대상_조정석 사장

조정석 (주)대원문화사 대표이사는 1977년 인쇄와 인연을 맺은 이래 30여년 이상을 인쇄문화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 조 사장은 현재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서울인쇄센터 이사장,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대한인쇄문화협회 이사, 대한인쇄연구소 이사, 서울인쇄조합 상업인쇄부회 간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대원문화사는 그동안 클린사업장으로 인증받고 ISO9001 인증과 이노비즈 인증서를 취득한 바 있다. 조 사장은 그동안 인쇄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우수중소기업인상(숭실대학교총장), 문화체육부장관상, 국무총리 표창장, 대한민국인쇄산업 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기술부문 대상_이재환 사장

이재환 태양씨앤피 대표는 서울공고 인쇄과 졸업과 동시에 인쇄와 인연을 맺은 이후 40여년 이상을 외길 인쇄인으로 살아오고 있다. 1975년 태양종합인쇄사를 설립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그동안 서울인쇄조합 상업인쇄부회 간사장, 서울조합 이사, 대한인쇄문화협회 이사, 대한인쇄연구소 이사, 서울인쇄센터 감사 등을 역임하며 우리나라 인쇄문화와 단체 발전에 기여해 왔다. 인쇄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진력해 왔으며 특히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이 요구되는 공연문화계와 미술 관련 인쇄물을 많이 제작해 오면서 예술인쇄의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정부포상인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진흥부문 대상_김상래 사장

김상래 (주)성도GL 대표이사는 Dow Chemical Pacific Ltd. 아·태 지역본부 재무담당이사와 미국 씨티뱅크 한국지점 마케팅 부장을 역임한 후 1996년부터 성도GL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성도GL은 Graphic Art Industry의 선도기업으로 일본 FUJIFILM, 미국의 ECRM 등과 제휴하여 인쇄와 프리프레스, PCB산업에 첨단의 디지털 장비 및 감광재료 화학약품을 공급하고 기술을 지원하는 마케팅 전문회사로서 우리나라 인쇄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University of Maryland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기업혁신 국무총리상과 국가산업 및 무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기도 했다.



특별부문 대상_홍종진 선생

홍종진 선생은 배첩장으로 충청북도 무형문화재이다. 1966년 이후 40여년 간 전통문화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으로 배첩기술의 계승과 보급에 헌신하였으며, 특히 대한민국 제4대 국새의장품 및 세계 기록유산의 보호에 공헌하고자 한국 정부와 유네스코가 공동 제정한 유네스코 직지상의 상장을 전통기법을 활용하여 제작, 한국 인쇄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선양했다. 또한 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행사에서 『직지심체요절』 등 우수한 “한국의 옛 인쇄”문화를 널리 알리고, 우리나라 전통 장정법을 시연함으로써 우수한 우리문화를 현양했다.



직지상_한행수 (주)두산인쇄 반장

한행수 (주)두산인쇄 반장은 1977년 동아출판사에 입사해 오늘에 으르고 있는 외길 인쇄장인이다. 현재 (주)두산인쇄에서 제판공정의 시스템부문을 총괄하는 기술전문 책임자로 우리나라 제판기술의 향상과 후배 양성에 기여해 왔다. 뛰어난 제판기술로 두산의 인쇄물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했고, 원색분해와 이미지처리, 필름출력, CTP출력, 전자대첩 등의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여 이를 자신만의 노하우로 간직하지 않고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한편 협력업체에도 기술을 전수하여 우리나라 제판기술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도록 노력했다.